

## <제9장>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너머

인문지리학 박사과정  
강석영

1980년대 후반 서구에서 학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단어는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포스트모던과 관련된 논의들로 학계는 열의가 넘쳐났으며 관련된 작가, 연구자, 저작물, 대상지 등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은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시기였다. 대중매체, 인터넷과 다양한 기술과 기법 등이 범람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들이었으며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복잡하다. 로컬, 세계, 퓨전, 하이브리드 같은 말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관 속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질적이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론이나 관점이 등장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하는데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사유 방식을 통해 인식을 하는 것이었다.

### 두 건축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는 상징적인 두 건축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상징은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아이고 공공주택단지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징은 로스앤젤레스의 보나벤처 호텔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에는 건축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종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이 대중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 미학적으로 본다면 모더니즘 건축은 엄격하게 기하학적 특징을 고수한다. 주로 격자 모양과 직선과 직각이 지배하는 형태이다. 지역의 맥락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훌륭한 모더니즘 대상은 어디에서나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겨졌고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양이어야 했다. 그렇기에 모더니즘의 건축물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합리성은 자유와 연결되었고 모던하다고 하는 것은 지린와 이성이라는 보편적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프루이트 아이고를 건설한 사람들은 합리성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지리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를 가속화시킨 것은 보나벤처 호텔이었다. 이는 쇠퇴한 도심부에서 기획된 공간으로 도시 안의 도시를 창출하고 주변의 도시로부터 구분되기를 바랐다. 이 건축물은 아이고처럼 사회 개선과 같은 시도를 포기한 대중 건축물이었으며 실내 디자인에서도 일관적인 공간적 논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나벤처 호텔은 도시에서 끊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자는 로스앤젤레스를 포스트모던 도시의 원형이라고 보고 공간적 어지러움을 다루었다. 상점의 배치, 호텔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 어지러운 동선 등 이러한 구조를 초월한 공간

이라고 제임슨은 언급하면서 초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모던 이론의 주요 특징

### 1) 메타서사의 거부

메타 서사란 근대 세계의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정치적 제도의 근간을 제공하는 설명이다. 종교적인 설명에서부터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처럼 과학 및 정치 프로젝트의 형식을 띤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메타 서사가 있다. 특히 지식의 형식을 갖추고 보편저공로 적용되어 가능한 넓은 영역을 그 설명 대상에 포괄하려는 메타서사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메타서사는 전체성을 추구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선호한다. 로컬이라는 것은 전체성에 대처함에 서서 본연적으로 비판적이 된다. 메타서사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다. 리오타르의 경우에는 반전체성 메타서사로 나아가도 한다.

### 2) 근본과 본질에 대한 거부

이론은 어떤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다. 이러한 믿음은 근본적 또는 본질적이다. 사물을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본이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포스트모더니즘 이전까지는 절대적이었다. 본질주의는 사물이 어떤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게 있어 사물은 본질적인 것을 지니고 있지만 절대적인 제거 불가능한 본질에 도달하기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반근본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메타서사는 그 이론에 힘을 부여하는 어떤 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가들은 모든 것이 환원될 수 있는 근본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재현의 문제

이론가들은 절대적 진리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실재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재현하려는 세계와 최대한 비슷한 텍스트를 생산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언어는 (가장) 투명하다고 가정되며 이전의 이론가들 또는 이론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행위도 믿을 수 없으며 외부의 실재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현'이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때의 로스엔젤레스

지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의 대다수는 로스엔젤레스를 배경으로한다. 소자는 보나벤처 호텔을 언급하며 LA의 경관 재구조화를 시뮬레이션했으며 경관 재구조화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자는 LA를 조각나고 균열된 공간으로 묘사하며 이전의 전형적인 도시(시카고와 같은)와 구분하며 분열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기존의 중심과 주변에 대해 해체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라고 하였다. 이는 대대적인 마케팅과 도시 이미지를 파는 기호에 가려진 채 팽창과 다중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는 여러 도시 형태가 뒤엉켜 있으며 '외곽 도시'이자 '프라이버토피아', '테마파크 도시' 등으로 일컬어진다. 시뮬레이션으로 그 이미지를 주민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벽하

게 모방해낸다. 이 '시물레이션'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핵심적이다.

## 포스트모던 지리학?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유형의 학문적 지식이 추구하는 확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지리학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디어는 비일관성을 언급하며 인문지리학이 인문사회과학적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19세기 이후 시간을 상징하는 역사가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리학에 있어서 관심이 역사에 쏠리면서 지리학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말한다. 공간에 대한 초점이 인문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사회와 세계를 인식하는데 있어 지리학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현재에 와서도 공간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를 구성하는 토대 자체를 거부한다.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은 거대 이론으로 일상의 총체성과 구조성, 일관성을 비판하게 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특수성과 독특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차이'를 주요한 관심이자 관점으로 둔다. 모든 설명은 항상 로컬 할 수 밖에 없기에 어떤 설명을 제시할 때 장소와 맥락을 증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비록 특수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리학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동하기 위해선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가지 특성과 연관지어야 했다. 첫 번째는 사회이론에서 공간의 중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간의 생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실재의 생산에 있어서 공간의 능동적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공간의 중요성은 커져가지만 시간을 강조하는 관점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거대한 이론적 서사의 밀접한 관계만큼은 아니었다. 공간과 지리학의 관계는 차이와 특수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장소, 지역, 로컬리티가 부각이 된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계 되는 것이었다. 지역지리에 무엇인가를 더해 현상적인 기술을 넘어 특수성과 지역이 포함된 서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서사나 이론에 대해 신뢰를 재고하고 중심과 근본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새로운 차이의 지리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차이'이다. 포스트모던적인 접근은 대상의 특수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피상적인 총체성 이면에 내재된 내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 비가시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며 그런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한 가지 종류의 차이에 흡수당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모더니스트 이론에서 공점함과 평등은 중요하게 언급된다. 하나 곧 차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차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넘어 '차이'에 집중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전개 된다. 나아가 가시적인 차이에 대한 관심은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차이'의 결핍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고 전환되면서 차이들 간의 경중에 문제, 보편적 합의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 지리학과 재현의 위기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가 이 세상 저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인식론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묘사하고 더 광범위하게 말해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반재현주의적 관점은 재현이란 어떤 실재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재현을 참조하는 것에 불과하며 진리나 실제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곧 재현이 실재를 생산한다는 주장은 강화되었다.

각 종 재현의 의미는 우리가 참조하고 재현하려는 어떤 대상에 기반을 둔다. 의미는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고 재현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뮬라크라는 원본을 대체했고 재현과 실재 간에는 구분이 사라졌고 재현과 실재는 동일한 것이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이런 점에서 재현은 단지 어떤 실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재라고 간주되는 것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재현의 한 형태 중 가장 중요한 대상은 지도이다.

근대의 지도는 과학적이거나 중립적이어서 하는 재현의 한 형태이고 이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지도학자의 작업은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형태의 지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도는 세계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도란 정확하고 과학적인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다른 유형의 지도나 대상들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글쓰기는 학문적 재현의 가장 분명하고 직설적인 방식이라고 언급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실재를 생산하는 데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글쓰기 기술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모호함을 수용하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 복수성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으며 창의적인 방식의 글쓰기를 실험해보면서 세계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글쓰기의 역할에 대해 각성시키고자 했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 이 세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것이라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재현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과정들처럼 말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협동적 형태의 글쓰기도 이러한 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 결론: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중 하나는 높은 곳에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신의 속임수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문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많은 공헌과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진행이 되었고 이외의 대상들은 접근하더라도 점유할 수 없었다. 이전의 이론가들가처럼 이국적인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음미하는데 관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론가들에 대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이다.

## 포스트모더니즘과 고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의 이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해체하고 전통적인 인식과 접근의 방식, 흐름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는 이전의 이론들이 비판 속에서 계속 대응하며 이론들이 공통점을 공유하며 전개되는 것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논리적이며 과격하게 접근하며 확장되었다.

시대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이론들이 변화하고 수용하고 적용되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도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하였다. 이 세계는 보다 더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모호한 세계에 대한 구분과 정의는 더욱 필요해져갔다. 그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당시 시대정신이자 학문적 맥락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으로 여겨졌고 생산과 수용을 통해 확장될 수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요소인 '해체'와 '재현'은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를 넘어 전체에 대해 비판하고 본질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개별적인 시각과 실재하고 있는 공간(시간이 아닌)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세계의 인식에서 있어 실재의 모습인 재현은 복제와 구현이 아닌 시뮬라르크를 넘어 이 세계의 자체를 가져오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지도에 적용하는 데 있어 지도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게 되었다. 지도란 이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인데 그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전근대의 지도들은 그 당시의 철학과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파문디, 동양의 지도, 대항해시대의 해도 등이 그러하다. 근대의 지도는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적용한 합리적인 지도이다. 올바른 지도는 아직도 지도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지금도 좋은 지도는 정확한 측량과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지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정보(지리적, 지형적인 정보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한)를 전달하고 있는 지도라고 여긴다.

고지도는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른 지도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위성사진과 최첨단의 기술로 측정된 지도만큼 정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요소 두 가지를 지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올바른' 지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도 제작에 있어 여러 상황이 고려되었겠지만 고지도(지금 남아 있는 옛날지도라는 관점에서)는 세계를 담아내었고 그 세계의 정보가 담겨져 지도로 표현되고 전달되었다. 이러한 지점은 지도라는 목적과 기능 지금도 적용되고 있으며 시간적 변화는 있으나 공간적 관점으로 이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

즉, 특수성과 지역성 등을 기반으로 이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시간적인 역사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방법론을 해체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시간의 변화 상을 보는 경관적인 복원과 고찰이 의미 있는 지역의 재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치부되는 고지도는 현재의 올바른 지도를 해체하고 다시 세계를 재현하는 대안으로 활용되어 인식될 수 있는 대상임을 주장한다.